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광양시,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

애호박·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시범 도입...하우스 온도 4~5°C 낮춰



광양시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홀베트, 차광막, 환기팬, 포그분무시설 등 온도저감기술 2가지 이상을 패키지로 하여 적용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사업 신청자를 받고 애호박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채소연구회(회장 박민수)와 산물 재배 학회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1.17ha의 규모 5개소 농가에는 포그방(고압식, 저압식)과 차광막 또는 공기순환팬 등 2가지 이상의 온도저감기술이 지원됐다.

그동안 여름철 하우스에서는 한 낮에도 내부를 환기하더라도 35~40°C가 되어 고온으로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개화과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의 생육장애를 입어 왔었다.

시는 이번 온도저감기술 도입으로 하우스 내부 온도를 4~5°C 정도 낮출 수 있게 돼 생육장애를 예방하고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중수 미래농업팀장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이 해당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이상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8년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과수, 채소, 화훼, 특작, 식량작물, 기술지원 등 5개 분야 18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의 농업발전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정부합동평가 '전남 도내 1위'

행정우수성 다시 한번 입증

순천시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금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11개 분야 평가에서 일반행정분야 등 몇 7개 분야에서 도내 1위 성과를 올리는 등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라 3

천만원의 포상금과 2여여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지난해 1년 동안 수행해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11개 분야 21개 지표에 대해 중앙부처와 평가위원들의 합동 검증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실적향상을 위해 모든 정량 지표에 대해 상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성평가는 전남도내에서 채택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시행하는 등 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일부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적 점검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156개 지표 담당자와 1:1 맞춤형 면담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평가에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항' 2018년도 하반기 인센티브제도 확대 개편

인센티브 확대 개편으로 '퀵' 물동량 증가 기대

항로개설유지 인센티브 15억 → 25억으로 증액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 시행한다.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제도에는 기존 항로개설유지 인센티브 구간인 유럽, 미주등안, 대양주 등 전라항로 외에도 미주서안, 동남아, 동북아 항로까지 확대해 항로 개설을 통한 물량 유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상반기 물동량 증가를 견인한 부정기 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 부정기선 인센티브 예산을 증

액해 더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인센티브 개편에는 올해 예산 132억원 중 미반영됐던 지자체 지원금(13억)이 반영됐으며 항로개설유지 인센티브는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부정기선 인센티브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2018년 광양항 인센티브 효과로 5월 누계 확정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94만TEU였으며 아프리카 신규항로 개설, 부정기선 증대 등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상반기 인센티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하반기 물동량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이번 인센티브제도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정원 글로벌 마케팅팀장은 "이번 인센티브 개편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300만TEU를 달성해 지립항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광양항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홍보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ygpa.or.kr) 내 '광양항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청년 일자리사업 전남 시군 국비 최다 확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국비 25억원...청춘창고 대표사례 선정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비 25억5천 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한 총 65억원을 하반기 청년 일자리사업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고용이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순천시는 7월부터 '청년 작은거인 더 드림(The Dream) 프로젝트', '청년회사로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3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작은거인 더 드림(The Dream) 프로젝트'는 10인 이하 소

상공인 사업장 40개소에 80여명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17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에게 직접적인 직무 관련 체험을 제공하는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는 6억1천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울촌·해룡산단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클린카 사업'에 1억8천만원, 청년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의 전문분야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에 9억3천 만이 투입된다.

이에 더해, 순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청년웹툰센터 및 제2의 청년창업 웰리시습 조성과

조곡동 청춘창고 옆 공간에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한 VR체험존 조성 사업에 30억5천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청춘창고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 선도사례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일자리 기본유형'으로 선정되어 전국화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올바른 복약지도

전남도 약사회와 연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화순군은 화순군약사회(회장 하재천)와 함께 지난 18일 화순읍 일심리 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만성 복합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약 복용방법과 치매예방 건강체조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불과 우유에서 약이 녹는 실험을 통해 약

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카타만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은 전남도 약사회와 협업을 추진되는 사업이며,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자의 약물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 오·남용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전문지식이 풍부한 약사회에서 현장 방문 교육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상·하반기 만성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바른 복용습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약이나 제때 복용하지 않은 약은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